



주간통일정세 2011-04(2011.01.17~01.23)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11-04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정세

### 1. 대내정세

#### 가. 정치

##### ● 北정치범수용소 6개, 15만여명 수감(1/18, 연합뉴스)

- 정부 소식통은 18일 “북한에는 총 6개의 정치범수용소가 있으며, 15만 4천여명이 수감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소식통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과거 10개까지 운영됐던 적도 있지만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국제인권단체들의 활발한 문제제기와 실태조사 요구로 북한이 국경 인근지역의 수용소들을 일부 폐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함.
-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로 평안남도 개천(14호관리소), 북창(18호관리소) 수용소와 함경남도 요덕(15호관리소) 수용소, 함경북도의 화성(16호관리소), 청진(25호관리소), 회령(22호관리소) 등 6개를 꼽음.
- 앞서 국가인권위도 지난해 1월 북한은 6곳은 정치범수용소를 운영 중이며, 수감자는 약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바 있음.
- 국제사면위원회(AI)는 올해 북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중점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짐. 현재 수감자 유형과 신원을 파악 중이며 정치범 수용소는 물론 교화소, 노동단련대 등 북한 내 수감시설 전반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 北김정일, 美中정상회담 전날 미사일공장 시찰(1/18, 조선중앙통신)

- 평안남도 개천시 소재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은 미사일 엔진을 생산하는 핵심 군수공장으로 추정, 일본 산케이신문은 작년 7월,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의 추진동력 부품이 2년 전 북한 개천시의 1월18일공장에서 만들어졌다는 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이 입수했다고 보도
- 이런 맥락에서 김 위원장이 미중 정상회담 바로 전날 이 공장을 시찰한 것은 여러 가지로 눈길을 끄.
- 김 위원장의 1.18공장 시찰 소식을 북한 매체가 전한 것은 1998년 6월10일 이후 13년만에 처음
- 고위 수행원 명단에서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거명하지 않았으며, 홍인범 외에 당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당 비서 겸직)·김경희(당 경공업부장), 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박도춘·태종수·김평해(당 비서)·주규창(당 기계공업부장)이 수행



- **北 장성택 어디에?·김정일 수행서 자취 감춰(1/21,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개활동에 거의 빠짐없이 따라다니던 매제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이 올해 들어서는 단 한번도 수행하지 않음.
  - 북한 매체의 김 위원장 공개활동 보도에서 장성택이 함께 거명된 것은 구랍 31일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의 군사훈련 참관과 같은 날 신년음악회 관람이 마지막
  
- **北박정순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사망(1/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에서 ‘중앙당’ 인사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진 박정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22일 사망, “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 제1부부장인 박정순이 불치의 병(폐암)으로 22일 1시에 82세를 일기로 서거했다”고 보도
  - 보통 서너 명으로 알려진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자리에는 당분간 김정옥(군 인사 담당 추정)만 남게 됨.
  
- **노동신문 지연 발행·이유 주목(1/23, 연합뉴스)**
  - 북한 매체들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전하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보도내용이 23일 오후 7시까지 전혀 전해지지 않다가 뒤늦게 업데이트 돼 신문 발행 지연 이유가 주목
  - 북한의 국영통신인 조선중앙통신은 매일 오전 9시~12시 사이에 당일 노동신문에 실린 주요기사제목을 소개하던 ‘○일 노동신문 면소개’ 기사를 23일에는 오후 7시 50분이 돼서야 송고
  - 또 노동신문의 주요기사와 사설, 논평을 당일 게재하는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오후 8시 현재까지 자체 기사만 실었을 뿐 노동신문과 관련된 게시글은 올리지 않았음.
  - 매일 오후 5시 20분~30분 사이 노동신문을 비롯한 민주조선(내각 기관지), 청년전위(청년동맹 기관지), 평양신문(평양시 당 위원회 기관지)의 주요기사를 소개하는 조선중앙TV의 ‘중앙신문 개관’도 이날은 결방
  - 이날 뒤늦게 송고된 조선중앙통신의 ‘면 소개’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총 8면 중 1면과 2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만수대창작사(평양시 평천구역 소재) 현지지도 소식과 사진을 함께 실었고, 3~6면은 현지지도 사진으로 채움.

#### ■ 김정일동향

- 1/18 김정일, 기술개건 된 1월18일기계종합공장 현지지도(1/18, 중방·중통)
  - 홍인범(平南道黨 책임비서), 김기남(黨 비서), 김경희(黨 부장), 박도춘·태중수·김평해(黨 비서), 주규창(黨 부장) 등 동행



- 1/19 김정일,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과 중앙동물원 현지지도(1/19, 중통·중·평방)
  - 문경덕(평양시黨 책임비서), 최태복·태종수(黨 비서) 등 동행
- 1/20 김정일·김정은, 평양시내 '11월20일공장'(건설기계공장 추정)과 룡악산생물공장을 현지지도(시찰)(1/20, 중방)
  - 당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최태복(당 비서 겸직)·김경희(당 경공업 부장 )와 후보위원인 태종수·문경덕(당 비서 )이 수행
- 1/21 김정일, 인민학습당과 사리원시의 식료공장을 현지지도(시찰)(1/21, 중통)
  - 당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최태복(당비서 겸직), 김경희(당 부장 )와 정치국 후보위원인 최룡해·김평해(당비서 ), 문경덕(당비서 및 평양시 당 책임비서 ) 외에 현철해·리명수 국방위 국장, 박태덕 황북도 당 책임비서가 수행
- 1/22 김정일·김정은, 북한의 최고 미술창작단체인 만수대창작사(평양시 평천구역 소재)를 '현지지도'(시찰)(1/22, 중통)
  - 당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최태복(당비서 겸직)·김경희(당부장 )와 정치국 후보위원인 최룡해·김평해(당비서 )·문경덕(당비서 및 평양시 당 책임비서 )이 수행

## 나. 경제

### ● 北, 쌀 등 생필품 가격 폭등, 대북인권단체(1/17, 연합뉴스)

- 최근 북한의 쌀과 옥수수, 돼지고기 등 식료품을 중심으로 생필품 가격이 급등
- 일각에서는 북한이 내부 전력 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대 중국 석탄, 철광석 수출을 중단한 것이 '달러 부족→물가 급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 일본 내 대북 인권단체인 '구출하자, 북한 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의 이영화 대표는 17일 익명의 '북한 내 소식통'을 인용해 "평양 시내 쌀값(이하 단위는 모두 1kg)이 지난 7일 1천400원(이하 북한 원화)하던 것이 3~4일 전부터 1천900원으로 뛰었다"고 전했다. 옥수수는 750원에서 950원으로 뛰었고, 돼지고기도 3천800~4천원에서 5천원으로 급등했다고 설명, 휘발유는 최근 3천500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의 대북 단파라디오인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도 비슷한 내용을 확인했다. 김 대표는 "오늘(17일) 아침에 (함경북도) 회령시에 있는 통신원에게 물어봤는데 쌀은 2천300원, 옥수수는 1천100원으로 올랐다고 했다"고 말했다.
- 데일리NK에 따르면 평양과 지방(평안북도 신의주, 량강도 혜산)의 쌀값 차이가 200원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생필품 가격



- 이 최근 급등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면, 북한의 춘궁기인 3~4월이 아닌 1~2월에 물가가 이처럼 치솟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함.
- NK 지식인연대 김홍광 대표는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석탄, 철광석 수출이 바로 생필품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가격이 올랐더라도 설을 앞둔 일시적인 물자 품귀 현상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고, 일각에서는 국제적인 식량 가격 급등이 북한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분석함.
- **北신문, 식량문제 자력 증산으로 해결해야(1/17, 노동신문)**
-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17일 1면 사설에서 “다음해에 수령님(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을 맞는 올해 농사는 경제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수령님과 당의 업적을 빛내고 우리식 사회주의 만세 소리를 높이기 위한 정치적 문제”라면서 “농업생산의 변혁을 일으키는 것은 올해 우리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밝혔다.
  - 신문은 이어 “지난해 자연재해로 많은 나라에서 알곡 생산이 떨어진 반면 생물연료 생산을 위한 알곡 수요는 늘어나 세계적으로도 식량 문제는 심각하다”면서 “이런 조건에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자체의 힘으로 농사를 잘 짓는 것 밖에 없다”고 강조
  - 또 만성적인 비료부족을 겨냥, “유기농법 도입은 세계 농업발전의 추세”라면서 “화학비료에 의존하지 말고 논밭에 유기질 비료를 더 많이 내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
  - 신문은 “불리한 봄철 기후조건에다 무더기비(집중호우)와 큰물(홍수) 피해까지 겪은 지난해 영농실태를 깊이 연구해, 올해에는 자연 기후조건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
- **당국자, 북한지역에 구제역 발생 첩보(1/18, 연합뉴스)**
- 정부 당국자는 “북측 지역에서 지난해 말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첩보가 있다”, “북한은 군 부대 등을 동원해 전국적으로 소나 돼지 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지난해 말 일본 내 대북인권단체인 ‘구출하자, 북한 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의 이영화 대표는 소식통을 인용해 평양시 강동군 구빈리에서 구제역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한 바 있음.
  - 북측은 구제역 발생 여부에 대해 공식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
- **中매체, 北 2020년 ‘발달국가’ 경제전략 소개(1/18, 연합뉴스)**
- 중국 언론매체가 북한이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소개와 더불어 2020년에 ‘발달(發達)국가’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도, 중국어로 발달국가는 통상 선진국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18일 조선중앙통신사를 인용해 내각 결정으로 정부기관인 ‘국가개발총국’을 설치해 국가개발 10개년 계획을 총괄토록 했으며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에 계획의 주요 내용을 실행하도록 위임했다고 전함.
  - 이어 이 계획에 따라 하부구조 건설과 농업, 전력, 석탄, 연유, 금속 등 기초공업, 지역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경제개발의 전략적 목표를 확정하고 이 계획이 수행되면 북한은 당당한 강국으로서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국제경제관계에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조선중앙통신사의 전망도 소개
  - 아울러 북한이 이 계획을 바탕으로 2012년에 강성대국으로 가는 문을 열고 2020년에 ‘발달국가’ 수준의 전망을 제시했다고 덧붙였으나 10개년 전략계획에 농업과 사회간접시설, 지하자원 개발을 두루 포괄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은 소개되지 않았다고 전함.
- **北, 구제역 돼지고기 판매금지 지시(1/18, RENK)**
    - 북한 당국이 구제역 확산에 ‘돼지고기 판매금지’ 조치로 대응하고 있을 뿐 제대로 방역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 ‘구출하자, 북한 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의 이영화 대표는 18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구제역 발생설에 대해 추가 정보를 제공, “구제역이 생긴 곳은 평양시 강동군 구빈리 축산 단지인데, 북한 당국이 4~5일 전 이 지역에 ‘돼지고기 판매’를 일체 금지한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함.
  - **北매체, 석탄 증산 연일 독려(1/19, 평양방송,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평양방송은 “문천탄광(강원도 소재)의 일꾼과 탄부들이 한 t의 석탄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 막장마다 노력투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탄부들은 채탄설비를 만가동(완전가동)시켜 높이 세운 일별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전함.
    -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은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15건이나 내놓았음.
  - **북한에 외화결제 현금카드 등장(1/20, 미국의 소리(VOA))**
    - 작년 말부터 미국 달러 등 외화를 받는 북한 내 상점, 식당 등에서 ‘나래’라는 전자결제카드가 쓰이고 있다고 보도
    -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이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인용, “조선무역은행이 작년 12월 말부터 외화를 미리 입금하고 전국의 외화 상점과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전자결제카드 서비스를 시작했다”면서 “대외결제은행 외화교환소에서 미화 3달러를 내면 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힘.
    - 중국대사관 측은 또 “일부 상점에서는 현금카드를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충전하면 할인 혜택을 주기도 한다”고 소개



- **北 전력난 심각, 휴대전화 충전도 못해(1/20, 열린북한방송)**
  - 겨울철 발전수량 감소와 화력발전용 석탄공급 차질로 새해 들어 북한의 전력난이 극도로 악화됐다고 보도
  - 량강도 혜산시 소식통은 “새해 들어 량강도에서 정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라면서 “평양에서도 일반 세대에는 하루 1~2시간밖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고 밝힘.
  - 또 “석탄 부족으로 전력 생산을 못하는 화력발전소가 많은데 특히 올해 겨울엔 탄광 안에 고인 물을 모터로 빼내지 못해 석탄을 캐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게다가 광산 노동자들이 받아온 하루 800g의 식량 배급마저 끊겨 노동자들이 달아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함.
  - 이어 “심각한 전력난 속에 당국은 공장과 기업소를 대부분 중단시킨 채 열차운행에 전력을 우선 공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평소 평양에서 혜산까지 열차로 사흘이면 가던 것이 지금은 1주일이나 걸리고 심지어 휴대전화 충전도 못할 만큼 전기 공급이 안 된다”고 덧붙임.
  - 이 방송은 “북한에선 강수량 증가로 수력발전이 늘어나는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전력사정이 훨씬 좋지 않다”면서 “이번 겨울엔 석탄공급 차질로 화력발전까지 제대로 못해 전력난이 더 심각한 것 같다”고 지적
  
- **FAO, 北구제역 긴급지원 준비중(1/21,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긴급 구호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
  - FAO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구제역이 성행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북한에서도 구제역이 발병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면서 “구제역 발생을 확인하는 북한의 공식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함.
  - FAO의 얀 슬린겐버그 동물보건 선임담당관은 “신속히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전문가들이 한반도와 주변국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를 정밀 분석하면서 백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구제역 발병 보고와 구호요청은 해당 국가의 무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FAO도 특정 국가에 발병 보고 등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함.
  
- **北, 지방은행에 외화 예금·결제 허용(1/22, 자유아시아방송(RFA))**
  - 지난해 10월부터 지방은행의 미국 달러 및 중국 위안화의 예금 및 결제 업무를 허용했다고 보도
  - ‘평안북도 신의주시 소식통’을 인용, “작년 10월10일부터 조선중앙은행 평안북도 지점에 무역결제 대금을 위안화와 달러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서“(지방지점에서는) ‘조선중앙은행 외화취급법’을 게시하고 개인들의 외화예금을 받고 있다”고 말함.



#### ■ 기타 (대내 경제)

- 대자연개조 구상에 따라 '용매도간석지' 지난해 12말 착공, 건설중 (1/14, 평방)
- 국가과학원 미생물학연구소 과학자들이 연구한 '미생물비료'의 농업생산 성과好評 및 平北道 협동농장들 적극 도입 보도(1/14, 중통)
- 농업과학원 식물보호연구소, '농작물 해충의 천적곤충 원색도감' 출판(1.14, 중통)
- 삼지연악단 신년경축음악회(인민문화궁전), 경희극 산울림 공연(국립연극극장) 등 각지 공장·기업소의 새해 진군 추동 공연진행 소식 보도(1/15, 중통)
- 낙원기계연합기업소 등 기계·채취공업·임업·상업공사·보건·국토관리부문 단위들도 새해 공동사실관철 쫓기모임 진행(1/16, 평방)
- 평양 순안구역을 비롯한 전국 농촌들의 유기질비료 생산, 우량품종 개발, 퇴비생산, 농기계수리 등 농촌지원과 새해 농사차비 성과 보도 (1/18, 중통/새해농사차비로 들끓는 조선의 농촌들)
- 평양돼지공장 30여개 보조 생산건물 건설·개건 등 현대적 생산기지 일신, 개성시 일꾼 등의 유기질비료 3,500여톤 농장지원 등 보도(1/18, 중방)
- 北 작가동맹 중앙위 작가들, 인민경제 여러부문에서 창작활동을 벌여 300여편의 작품 창작(1/18, 중통)
- 남포유리공장 종업원-건설자들, 1.19 강양모(남포시黨 책임비서) 등 참가下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쫓기모임 진행(1/20, 중방)

#### 다. 군사

##### ● 북한의 실질군사비 발표치 13~15배(1/18, 연합뉴스)

-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18일 발간한 '2010 국방예산 분석, 평가 및 2011 전망'이란 책자를 통해 "북한은 90년대의 극심한 경제난과 2000년대 중반 이후 마이너스 성장에도 군사비만은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다"면서 "북한 화폐의 구매력 환율을 적용하면 실제 군사비는 공표 군사비의 13~15배로 추정된다"고 밝힘.

##### ● 굶주린 北군인들, 간식처럼 소금 먹어(1/18, 자유북한방송(RFA))

- 굶주린 북한 군인들이 소금을 간식처럼 먹는 일이 많아 소금 중독으로 사망하는 군인도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
- 북한 5군단 포탄창고 경비소대(강원도 이천군 건설리 소재)에서 최근 제대했다는 이광남(가명)씨는 이 방송에 "(북한) 군인들이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소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간식처럼 먹는 일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면서 "군부대에서 소금 냄새가 날 정도로 소금에 중독된 군인들이 많으며, 염독으로 죽는 경우도 속출한다"고 말함.





- **北, 주민한테 군량미 거둬·軍식량사정 최악(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당국이 일반 주민들에게 군량미를 걷은 예는, 수백만명이 굶어 죽은 것으로 알려진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때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발표 직전 두 차례 밖에 없었다고 이 방송은 강조
  - 이 방송에 “지난 10일 ‘인민군 원호사업’에 양심적으로 참가하라는 중앙당 지시문이 내려와 12일부터 공장, 기업소, 인민반 단위로 군량미를 걷기 시작했다”면서 “군인들이 혹한 속에 통강냉이 죽을 먹으며 초소를 지키고 있다”는 식으로 독려하며 나중에 실적 평가도 한다고 해 사실상 강제로 걷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힘.
  - “1997년 봄과 2002년 3월 주민들한테 군량미를 걷을 때는 쌀과 옥수수만 받았는데, 이번에는 (보관이 어려운) 감자만 빼고 보리, 밀, 메주콩, 팥, 울타리콩 등 모든 대용식량을 걷고 있다”면서 “군인들이 염장배추조차 없어 맨 소금국을 먹을 정도로 사정이 나쁘다고 한다”고 전함.
  
- **北병사, 中서 양식 훔치다 주인 살해(1/21, 연합뉴스)**
  -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된 가운데 지난해 12월 북한 병사 2명이 월경해 중국의 한 농가에서 양식을 훔치다 발각되자 주인을 살해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지린(吉林)의 공안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연변(延邊) 조선족자치주 창바이(長白)조선족자치현 압록강 부근의 한 농가에서 주인 남성이 총격을 받아 사망

#### 라. 사회·문화

- **北, 기독교 박해 가장 심한 나라(1/17, 연합뉴스)**
  - 지난해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했던 국가는 북한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옴.
  - 국제기독교선교단체 ‘오픈도어스’가 17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2011 월드 워치 리스트’에 따르면 북한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50개 국가들 중 박해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월드 워치 리스트를 해마다 작성하고 있는 오픈도어스는 북한이 9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고 지적
  -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에서 체포된 기독교인들은 수백명에 달하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목숨을 잃으며, 강제수용소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5만~7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함.
  
- **北, 기독교인 사회사업가 일대기 영화 제작 예정(1/17, 데일리NK)**
  - 북한이 1930년대 타계한 기독교인 사회사업가의 일대기를 영화로 제작할 예정



- 북한의 조선영화수출입사가 뉴질랜드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아 기독교인이었던 백선행 여사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어 북한 전역의 영화관과 TV를 통해 공개할 예정
  -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기독교적 대사가 포함된 영화를 제작·상영기로 한 것은 심각한 외화난 때문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분석
- **北, 휴대전화 이용자 1.2% vs 3G 보급 100%(1/19, 자유아시아방송(RFA))**
- 휴대전화 이용자 전원이 3G(3세대 이동통신) 단말기를 쓰고 있다고 전함.
  - 영국 이동통신 분석회사 ‘텔레지오그래피’의 티나 하비 대변인은 RFA에 “전 세계 171개국을 대상으로 3G 기술 보급률을 조사한 결과, 수치상으로는 북한이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북한의 휴대전화 이용자수는 30만명에 불과하지만 모두 3G 휴대전화를 쓰고 있어 3G 보급률에서는 일본(95%)이나 한국(72%)보다 높았다”고 말함.
  - 하비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에선 당국이 허용한 극소수만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어 주민들이 3G 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북한의 휴대전화 이용자수는 전체 인구의 1.2%(2009년 현재 2천406만명 기준)에 불과한데 이동통신 기술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이보다 훨씬 많아져야 한다”고 덧붙임.
  - IT전문매체 IDG의 마틴 윌리엄스 도쿄 지국장도 “3G기술 보급률에서 북한이 1위라는 것은 단순한 계산의 결과”라면서 “휴대전화 사용 지역이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북한을 통신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
- **北장마당에 ‘3대세습 비난’ DVD 나돌아(1/20,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함경북도 국경 지역의 장마당(시장)에 최근 ‘3대 권력세습’을 비난하는 내용의 DVD가 나돌고 있다고 보도
  - “작년 12월 말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DVD 수백 장이 회령시 장마당에서 팔렸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보던 인민반장이 이상한 내용을 발견하고 보위부에 신고했다”면서 “이 DVD에는 3대세습을 풍자한 ‘곰 세마리’ 동영상과 김정은 비난글이 들어가 있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또 “이달 초 회령에 급파된 보위부 수사요원들이 DVD를 수거해 검열하면서 문제의 DVD에 찍힌 지문과 주민들의 지문을 일일이 대조하고 있다”면서 “이번 수사는 ‘반 사회주의의 조직을 근절하라’는 김정은의 친필 지시로 시작됐다고 한다”고 말함.



## 2. 대외정세

### 가. 일반

- **北, 日납치상 발언 비난·대화 재개 차단용(1/17, 조선중앙통신)**
  - 일본 나카노 간세이(中野寬成) 납치문제담당상의 발언을 비난하면서 “일본의 극우보수세력이 대화분위기에 불안을 느끼면서 새 내각이 조일(북일)대화 재개에 나서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이 통신은 ‘대화 분위기를 해치려는 위험한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나카노 납치문제담당상이 14일 우리에 대해 ‘독재국가’라는 발언을 했다”며 “문제는 그의 악담이 조일 사이에 대화 재개문제가 상정되고 협상의 방법으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긴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한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때에 나온 것”이라고 지적
  
- **北, 황금평 개발 위한 특별법 마련(1/17,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중국과 합작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압록강의 섬 황금평을 특구로 개발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특별법도 이미 마련한 것으로 알려짐.
  -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17일 “북한 당국이 황금평을 공업단지로 개발할지, 라선지역과 같은 특구로 개발할지를 놓고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특구로 개발하기로 결론 내렸으며 이를 위한 특별법도 이미 마련했다”고 말함.
  - 황금평 개발은 최근 대풍투자그룹을 대신해 북한의 외자 유치 전담 기관으로 등장한 합영투자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함.
  - 북한 합영투자위는 지난해 12월 말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와 라선 지구와 황금평을 임가공 단지 등으로 합작 개발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짐.
  
- **北경쟁적 투자유치전속 박철수 도태설(1/19, 연합뉴스)**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핵심 측근들이 경쟁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대풍그룹) 박철수 총재의 도태설이 나오고 있음.
  - 외부로 드러난 북한의 투자유치 그룹은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이사장으로 하는 대풍그룹과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이 주도하는 합영투자위원회,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의 조선자원투자개발공사 등의 세부류인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아온 대풍그룹은 실적이 전무하다시피 하고 나머지 두 곳은 상대적으로 ‘선진’하면서 대풍그룹과 박 총재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임.



- **北, 中무단장에 여성노동자 2천명 파견추진(1/19, 연합뉴스)**
  - 북한이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무단장(牧丹江)시에 여성 노동자 2천 명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과 중국은 경제 협력의 한 모델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훈춘(琿春)과 투먼(圖們) 등 북-중 접경지역에 북한 노동자들을 파견하는 방안을 협의해왔으나 아직 성사되지는 않았음.
  - 무단장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기범 주선양 북한총영사가 지난 7일 무단장시를 방문, 장징촨(張晶川) 시장과 만나 북한의 여성 노동자 2천 명을 무단장 동닝(東寧)현에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했음.
  - 이 소식통은 “장 시장이 이 자리에서 동닝현 관계자들에게 북한 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도록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이날 저녁 쑨지순(孫吉舜) 동닝현 부서기와 쑨후이(孫輝) 동닝현 외사판공실 주임 등이 이 총영사를 따로 만나 진전된 논의를 했다”고 전함.
  -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무단장에 파견되면 목재를 여러 겹으로 합쳐 가공하는 집성목 제조 공장에서 일할 것으로 알려짐.
  
- **北 라선개발 의욕…5성급호텔, 골프장, 4-6호 부두 추가 개발, 대규모 무역시장 신설도 추진(1/20,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 말 중국과 합작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라선특구에 5성급 호텔과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개발 의욕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짐.
  - 대북 투자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는 중국 지린(吉林)의 중건 건설업체 T그룹이 회사 홍보를 위해 제작한 대북 투자 추진 계획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라선특구에 5성급 호텔과 골프장과 대규모 무역시장 건설 계획을 마련,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투자자 유치에 나서고 있음. 지난해 말 작성된 이 자료는 북한이 위탁시설을 갖춘 건축면적 2천㎡ 규모의 5성급 호텔과 정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
  - 북한은 라진항 부두 확장 개발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음. 중국과 러시아에 사용권을 부여한 기존의 1-3호 부두 이외에 4-6호 부두 건설을 추진, 4호 부두는 연간 30만t의 처리 시설을 갖춘 철광석 전용 부두로, 5호 부두는 20만t급 컨테이너 부두로, 6호 부두는 10만t급 종합 화물 처리 부두로 특화하겠다는 구상임.
  
- **北, 합영투자위가 외자 유치 전권 장악(1/21, 연합뉴스)**
  - 지난해 말 중국 상무부와 압록강 섬 황금평 및 라선특구 합작 개발에 합의한 북한의 합영투자위원회가 북한의 투자 유치 전권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짐.
  -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족한 합영투자위가 북한의 투자 유치를 지도, 관리하는 국가적 중앙지도기관으로 자리잡았다고 함.



### ● 미중 정상회담 보도·UEP언급 없어(1/22, 조선중앙통신)

-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소식을 별다른 논평없이 보도
- 중앙통신은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조선반도 정세 등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면서 “19일 발표된 중미공동성명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북남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남대화를 호소했다”고 말함.
- 이어 “성명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 이행에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 그러나 공동성명에서 ‘미중은 북한이 주장하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고 적시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음.
- 북한 매체가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보도한 것은 회담 이틀만에 나온 것으로, 회담 내용을 비교적 신속하게 전한 것이어서 북한의 관심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 기타 (대외 일반)

- 작년 美비자 받은 북한인은 65명(1/22, 자유아시아방송(RFA))
- 박의춘(외무상), 1.19 駐北 세계보건기구(WHO)대표(‘요나스 테겐 월드마리암’) 신임장 접수 및 담화(1/19, 중통)
- 北-루마니아, 1.20 평양에서 김성기(외무성 부상) 참가下 1956-1989년 체결된 ‘상호협정의정서’ 조인식 진행(1/20, 중방)

## 3. 대남정세

### ● 北매체, 샤프 ‘미사일 타격’ 발언 비난(1/18, 우리민족끼리)

-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의 ‘미사일 타격’ 발언과 관련, “이 같은 도발적 망발은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 임의의 순간 북침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범죄적 기도”라고 비난
- “오늘날 조선반도의 엄중한 군사적 긴장과 격화 상태를 초래한 장본인은 미국”이라면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선제타격을 운운한 것은 미국이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고 주장
- 샤프 사령관은 지난 13일 미국 P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억지하는 것이 첫번째 목표지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중대한 위협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타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연합성명엔 ‘대국들’ 향한 메시지 담겨(1/18, 조선신보)**

  - 신문은 ‘조선이 주도하는 국면전환’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호금도-오바마 회담을 준비하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조선반도 문제가 중요한 ‘공동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면서 “조선이 연합성명을 통해 내놓은 대화 제안은 남북 거래를 향한 것이지만, 대국들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주장
  - 또 “그 메시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것으로, 대국들의 행보를 앞질러 조선이 난국 타개의 출로를 제시한 셈”이라면서 “(현재의) 정세전환 국면이 불가역적이라면 조선 문제 유관국들도 새로운 행보를 보일 것이고 오바마 행정부도 정책선회 카드를 꺼낼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
  - 이어 “향후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한 대화 외교가 본격화되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치구도를 뒤흔드는 사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
  
- **北매체, 예비군 전방훈련 계획은 반민족적 행위(1/18, 우리민족끼리)**

  - 우리 군당국이 올해 한미연합훈련에서 일부 예비군 부대의 전방 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우리민족끼리’가 18일 “전면전이 박두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의 대화 제의와 온건거래의 평화, 통일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행위”라고 비난
  - 북한은 교도대 60만명, 노농적위군 570만명, 붉은청년근위대 100만명 등 모두 730여만명의 예비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하계 정규훈련 외에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될 때도 대응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짐.
  
- **北, 청정지역 수입육 개성공단 반입 허용(1/18, 연합뉴스)**

  -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 개성공단 검역소는 청정지역에서 수입된 돼지고기와 쇠고기, 닭고기의 개성공단 반입을 최근 허용함. 북측은 앞서 남측에서 구제역이 확산되자 지난해 12월 말부터 국내산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개성공단 반입을 중단했었음.
  - 또 지난해 11월부터는 국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국내산 닭고기의 반입도 금지해왔음.
  -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이 청정지역에서 수입된 돼지고기와 쇠고기, 닭고기의 개성공단 반출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할 방침이나, 18일 현재까지 청정지역 수입육의 개성공단 반출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
  
- **대북 라디오 홈페이지 ‘北소행 추정’ 디도스 공격(1/18, 연합뉴스)**

  -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대북 단파라디오 자유북한방송의 홈페이지가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받아 한동안 폐쇄됐음.



- 北, “전쟁은 가슴 저린 손실”··대화 안하면 전쟁(1/19, 우리민족끼리,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전쟁방지와 평화수호를 위해 중요한 요구’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파괴와 살육을 동반하는 전쟁은 가슴 저린 손실을 주고 해당 나라와 지역의 경제, 안정을 파괴하며, 국제관계 발전에도 해를 주는 가장 위험한 행위”라며 대화 재개를 요구
  -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고 관계 개선에 힘을 넣는 것은 현시기 평화보장의 중요한 요구이며, 문제 해결에서 대화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면서 “세계적으로 제일 첨예한 정세가 조성된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도는 대화와 협상”이라고 주장
  - 이어 “우리의 자위적 억제력이 강화될수록 당과 공화국 정부는 그것을 평화수호의 담보로 틀어쥐고 정세가 일촉즉발일 때도 평화수호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가 보장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당과 공화국 정부의 평화애호적 노력의 결실”이라고 주장
  
- 北 고위급군사회담 제의··南 긍정 검토(1/20, 연합뉴스)

  - 북한은 20일 오전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명의로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전격 제의하는 전통문을 보내옴.
  - 북측은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명의로 김관진 국방장관 앞으로 보낸 전통문에서 “군사적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고위급군사회담을 하자”고 제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힘.
  - 북한은 예비회담의 개최 날짜와 장소는 남측의 편의대로 정하자고 제의했고, 모든 현안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짐.
  
- 정부, 北고위급군사회담 제의 수용키로(1/20, 연합뉴스)

  -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해 북측이 제의한 예비회담을 수용하고, 비핵화 문제를 별도로 논의할 고위급 당국 간 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의하기로 했음.
  - 통일부는 북측이 이날 오전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명의로 김관진 국방부 장관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하면서 의제로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할 데 대하여’로 할 것을 제의해왔다고 이같이 밝힘.
  
- 北, 고위급 군사회담서 모든 군사적 현안 해결(1/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한지 하루 만에 다시 이번 회담에서 남북간의 모든 군사적 현안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
  - “남측이 북남 당국간회담 의제로 상정하려는 내용들은 북남 군당국과 관계되는 군사적 성격의 문제”라면서 “그것을 포함한 모든 군사



적 현안문제들을 북남 고위급 군사회담에서 해결할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힘.

- 이 통신은 또 “온 세계가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는 때 유독 조선반도에서만 반목과 질시, 대결과 충돌의 악순환 속에 군사적 긴장상태가 지속돼, 북남관계가 분열사상 최악의 사태에 처해 있다”면서 “이런 사태 앞에 동족이라면 북에 있든 남에 있든, 정계에서 일하든 군부에서 복무하든 그 책임을 느낄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
  - 이어 “과거에 구속되지 않고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앞길을 열기 위해 조선반도 긴장완화와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년대기를 마련하는데 응당한 사명과 본분을 다한다는 것이 우리 군대의 드팀없는(틀림없는) 의지”라고 덧붙임.
  - 통신은 전날 보낸 전통문에 “회담 시기를 2월 상순의 합의되는 날짜로, 장소는 쌍방이 합의하는 편리한 곳으로 정하고, 실무적 토의를 위한 예비회담은 1월 말경 갖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
- **北신문, 군사회담제안 끝면(面)에 실은 속내는?(1/21, 연합뉴스)**
- 21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이날자 ‘노동신문 면소개’에 따르면 북한이 전날 남측에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했다는 기사는 마지막 면인 8면에 어중간하게 실렸음.
  -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명의로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보낸 ‘군사회담 제안’ 통지문 내용은 8면에 실린 7건의 기사 중 3번째로 ‘지면 소개’에 인용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 28일 방한(1/23)

-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 겸 북핵 6자회담 러시아측 수석대표가 오는 28일 방한한다고 외교통상부가 23일 밝혔다.
- 보로다브킨 차관은 28일 오후 위성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 및 만찬을 갖고 북핵문제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에는 러시아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북핵담당대사가 수행함.

##### ● 백악관 “北우라늄농축 中인정에 만족”(1/22)

- 미국 백악관은 2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데 대해 거듭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이 갖고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이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담은 (공동)성명을 중국이 처음으로 인정한데 대해 만족한다”고 말했다.
- 그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아시아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압박했다’는 뉴욕타임스(NYT) 기사를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이같이 답했다.
- 그는 “우리는 북한의 공격적인 활동들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이들 문제에 대한 대처에 중국이 효과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방장관, 국무장관 등을 통해 일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한간의 대화 시작에 만족해 한다”고 남북 고위급군사회담 합의를 환영했다.

##### ● 정부, ‘비핵화 고위급대화’ 별도 제안 방침(1/21)

-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남북대화를 위해 조만간 외교통상부를 주축으로 별도의 대북제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비핵화 ‘비핵화 고위급 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사항을 검토중이며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북측에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 정부 소식통은 “비핵화 문제의 주무부서는 외교부이며 앞으로의 대 북 대화제안도 외교부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를 중심으로 고위급 대화의 급과 시기, 의제 등을 놓고 검토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그러나 현재 북핵 문제를 전담하는 외교통상부와 북한 외무성 사이에 공식 교섭채널이 없어 어떤 형식으로 통보할 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비핵화 남북대화를 위해 통일부-통일전선부 채널이 아니라 외교부와 북한 외무성간 채널이 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비핵화 회담이 열릴 경우 실질적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한으로부터 비핵화를 실천하겠다는 약속과 진정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 美스타인버그 26일 방한..北UEP, 6자재개 협의(1/21)

-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6일부터 이틀간 방한할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이번 방한은 미·중이 19일 정상회담을 통해 6자회담 프로세스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 이행을 촉구하고 남북한이 대화재개에 공식 착수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됨.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등 우리측 고위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향후 북한과 북핵문제 관련 공조와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특히 미국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한 양국의 공동대응 방안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남북대화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조율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한국에 이어 27일 도쿄, 28일 베이징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임.

#### ● 백악관 “남북대화, 미중 정상회담 결과”(1/21)

- 백악관은 20일 남북한이 전격적으로 고위급 군사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우려를 표명한 것을 골자로 한 미·중 정상회담 합의의 성과라며 환영했음.
-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고위급 군사회담 합의에 대해 “앞으로 가는 중요한 조치이자 긍정적 조치”라며 “중국이 북한의 농축프로그램에 대해 처음으로 인정했던 어제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기브스 대변인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국은 북한의 대화 제안을 수락했다”며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데 발을 맞추기로 함으로써 한국이 대화를 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기브스 대변인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안보 분야의 성과와 관련, “중국이 공동성명에서 북한 UEP에 대해 입장을 낸 것은 한국이 북한과 대화에 착수하도록 할 만큼 믿을 수 있는 일련의 여건을 만들어냈다”고 부연했음.
-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도 외신브리핑에서 미·중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북한의 UEP에 대한 우려가 포함된 것과 관련, “우리가 북한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북한의 UEP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미국과 중국간에 이번주 이 문제를 논의했고, 이 우려를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음.

#### ● 美 “남북군사회담 개최, 중요.긍정적 신호”(1/21)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20일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 합의에 대해 “중요하고 긍정적인 신호”라고 환영했음.
-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도 이날 외신 브리핑에서 “남북간의 대화를 환영한다”면서 “동시에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이 의미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고 밝혔음.
- 크롤리 차관보는 “긴장 완화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6자회담을 위한 여러 조치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음. 그는 북한이 취할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일련의 도발을 중단하고, 2005년 공동성명 하에서의 의무를 이행하길 원한다”고 말했음.
- 하지만 그는 “우리는 확정적인 리스트를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 “북한이 그들의 의무를 준수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가질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줄 명확한 조치를 원한다”고 말했음.
- 그는 이어 “우리는 대화가 생산적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6자회담 재개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과가 얻어질 수 있다는 좀 더 큰 확신이 들면, 그 때 6자회담 재개의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음.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이 취하길 원하는 의미있는 조치는 “궁극적으로 한국이 규정할 문제”라고 말했음. 그는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좀 긍정적인 신호를 봤다”면서 “좀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길 원하며, 긍정적 조치들이 계속되길 원한다”고 밝혔음.
- 그는 이번 남북대화가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는 조치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의미있는 6자회담을 할 수 있기 이전에 북한이 가야할 길이 있다고 여전히 믿는다”고 답했음. 구체적으로 그는 북한에 어떤 조치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북한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 <안보리 ‘北UEP 논의’ 어떻게 되나>(1/20)

-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우리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음.
-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19일(현지시간) 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우리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돼있음.
- 안보리는 지난 해 11월 북한의 UEP 문제를 논의한 적 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반대 등 관련국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음. 정부도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된 이번 공동성명에 UEP에 대한 우려가 포함된 점에 의미를 크게 부여하며 반기는 분위기임.
- 정부 당국자는 20일 “중국이 국제무대를 통해 UEP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처음이고 이는 공동성명의 성과”라고 말했다.
-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우리농축 프로그램은 9.19 공동성명과 유엔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며 “따라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고 안보리 대응과 관련해서는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을 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 그러나 실제로 UEP 문제가 안보리에서 다뤄지는 상황까지 이어질 것으로 장담하기는 이르다는 게 중론임. 한국과 미국은 지난 5일 스티브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했을 때 UEP를 안보리 논의를 통해 규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뤄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였음. 미국이 중국의 반대 입장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며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더구나 중국 추이첸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14일 북한의 UEP에 대해 “현재로서는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음. 한국 정부는 그동안 외교경로를 통해 추이 부부장의 발언이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확인해보려고 했지만 중국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음.
- 이런 상황에서 미·중 공동성명만으로 중국의 태도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기는 무리라는 관측이 나옴.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the DPRK’s claimed)’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것은 중국이 북한의 UEP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상황을 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의장성명이나 결의문 등의 성과를 도출해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UEP가 안보리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은 있지만 상황을 좀더 두고봐야 한다”며 “다음 주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이 방한한 뒤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 <후진타오 방미> 北해법, 美-中이해 ‘절충’(1/20)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9일 정상회담에서 북한문제와 관련한 깊은 논의를 했음. 안보이슈로는 ‘최고 의제’라고 백악관이 미리 예고할 정도로 북한 문제는 이날 미 중정상회담의 핵심이었음.
- 공동성명과 두 정상의 기자회견을 통해 나온 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법은 양국의 이해가 반영된 일종의 절충적 성격이 짙은 것으로 분석됨. 일단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인 조치라는데 의견을 모았음.
- 남북관계의 선(先) 개선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한미 양국이 최근 6자회담 재개 분위기 조성의 한 조건으로 사실상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도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명확한 동의를 한 셈임. 특히 한국 정부가 강조해 오던 ‘진정성’ 있는 ‘대’를 ‘필수적 조치’로 중국이 동의를 한 것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음.
- 또 중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대해 미국과 함께 우려를 표시한 것도 주목됨. 중국의 이런 입장은 지난 14일 추이텐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해 “현재로서는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다”고 판단유보 입장을 비친 것과는 다른 것임.
- 이는 북한의 우라늄농축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던 중국의 태도가 바뀌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언급한 것도 긍정적임.
- 관심을 모았던 6자회담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 프로세스의 조속한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는 공동성명 문안을 내놓았음. 이는 그동안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바라던 중국 측 입장이 좀 더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물론 북한에는 한·미·일 3국이 바라는 핵실험 동결 등 6자회담 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의미가 될 수 있지만, 미국이 6자회담 프로세스의 조기 재개 필요성에 중국과 공감했다는 점은 주목됨.
- 사실 미국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의 우라늄농축 시설 공개 이후 그동안의 대북정책이 ‘전략적 인내’의 한계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있어왔고, 이번 공동성명은 ‘대화’쪽으로 좀 더 무게가 기운 미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것임.
- 이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북한에, 미국은 한국에 대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압박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관련국들의 후속 협의 결과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는 급류를 탈 가능성이 있음.



-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한덕수 주미대사가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미·중 정상회담 이후의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조만간 미국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방한하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음.
-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중이 합의한 6자회담 프로세스의 조속한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필요한 조치’은 관련국들간에 앞으로 협의할 과제”라면서 “지금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다”고 말했다.

### ● <정상회담서 드러난 中 북핵해법>(1/20)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워싱턴에서의 미중정상회담과 그에 이은 공동기자회견, 공동성명에서 밝힌 북한 핵문제 해법은 중국의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 보임.
- 후 주석은 정상회담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하며,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안보를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공조·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말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요약해 전했다.
- 그럼에도 후 주석이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안보를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의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눈길이 쏠림. 지난해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사건에 이어 한미, 미일 합동군사훈련으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시련을 겪었다면 이제는 공조와 협력 강화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불안정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지는 언급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나 후 주석의 이 언급은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과 맥이 닿아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됨. 평화협정 문제는 2005년 9.19 공동성명에도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명시돼 있음. 한미 양국도 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한반도 비핵화 진전이 있고서야 가능한 ‘후순위’로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이런 과정없이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임.
- 사실 후 주석의 이날 북핵해법 발언의 수준은 이미 정상회담 전인 15일 미국 유력지인 워싱턴포스트 및 월스트리트저널과 서면인터뷰, 그리고 후 주석의 대변인 격인 추이텐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의 14일 발언에서 이미 예고됐다는 지적임.
- 후 주석은 언론 인터뷰에서 “관련국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를 하며, 6자회담을 통해 포괄적이고 균형되게 9.19 공동성명을 이행한다면 우리가 한반도 핵문제를 풀 적절한 해법에 도달할 것”이라는 말로 북핵 해법을 전했다.





- 이는 북한을 동등한 당사국으로 존중하며 협상을 하자는 것으로 UEP를 포함한 모든 현안을 포괄해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을 갖고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자는 입장으로 해석됐으며 이날 후 주석의 정상회담 기자회견 발언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임.
- 그럼에도 UEP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과거보다 ‘진전된’ 입장을 보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북한의 무리늬 농축 계획에 대해 ‘우려(關切)’을 표시했다”고 밝힌 점은 지난 14일 추이 부부장이 “북한 UEP가 현재로서는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다”고 판단유보 입장을 비친 것과는 뉘앙스가 크게 다른 ‘진전된’ 입장변화로 보이기 때문임. 중국은 그동안 외교채널을 통해서 북한 UEP 문제는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을 비쳐왔음.
- 이에 미국은 북한의 UEP 사안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서 대책 마련에 부심해왔고, 실제 오바마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증가하고 있는 직접적 위협”이라고 언급하면서 “북한의 UEP는 북한이 한 약속은 물론 국제적 의무사항의 위반”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음.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UEP에 대한 입장변화를 보임으로써 향후 이와 관련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음.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UEP를 포함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언급한 점은 그런 위협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과거 조지 부시 미 행정부 때처럼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중국까지 겨냥하는 미사일방어체제(MD) 부활 카드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있음.
- 북한의 아무런 조건없는 남북대화 재개에 찬성 입장을 보여온 중국이 진지하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이라고 합의한 점도 진정성있는 사전조치를 동반한 대화 재개를 주장하는 남한의 입장에 한 발 다가섰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있는’ 변화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옴.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여러 사안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진 미중 정상회담과 그에 이어 나온 후 주석과 중국 당국의 미세한 입장변화는 향후 논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면서 “문제는 중국의 이런 변화가 어떻게 현실화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문제 해결의 향배가 달렸다”고 분석했음.

#### ● 클린턴 “미·중, 북핵문제 긴밀 협력”(1/19)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8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간에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음. 클린턴 장관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맞아 이날 중국 CCTV와 가진 회견에서 미국과 중국 양자관계에서 그동안 어떤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문





- 에 북한과 이란 핵문제와 관련한 협력을 예로 들었음.
- 그는 “중국은 이란과 북한 핵 프로그램 제재에 매우 깊이 관여했다”면서 “이는 북한이나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지는 것은 중국과 미국 및 나머지 전 세계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미·중이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이어 “북한이 중국의 이웃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중국에)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잘 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또 “우리(미국과 중국)는 1, 2위 경제국가로서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으며, 북한과 이란의 핵프로그램에 의해 야기된 세계 안정에 대한 위협에도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편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된 질문에 “우리는 이전에도 이들 문제를 안보리로 가져갔다”면서 “다시 이런 논의들을 (안보리로) 가져가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그는 “우리는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광범위한 논의들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 후진타오 “6자회담 재개 환경창출 기대” (1/17)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6일 북핵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기대하면서 이를 위한 관련 당사국들의 적극적 조치와 환경 창출을 기대했음. 후 주석은 오는 19일 백악관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포스트(WP) 및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가진 공동 서면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WP 인터넷판이 이날 전했다.
- 후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 “중국은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대화와 협의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에 비핵화를 이루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우리는 관련 당사국들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들(active measures)을 취하고 환경들(conditions)을 창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언급은 한·미·일 3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임.
- 후 주석은 이어 “관련국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를 하며, 6자회담을 통해 포괄적이고 균형되게 9.19 공동성명을 이행한다면, 우리가 한반도 핵문제를 풀 적절한 해법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또 최근 한반도 긴장사태와 관련, “수주 전 한반도에는 높은 긴장이 있었고,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며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 그는 “우리는 남북한에 대해 냉정한 자제력을 발휘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어떤 행위도 자제하며 적절한 해법을 찾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대화와 접촉을 가질 것을 촉구했고, 유관국가에도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었다”면서 “이런 노력의 결과 (긴장) 완화의 조짐이 있다”고 밝혔다.
- 그는 이어 “우리는 관련국들이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대화와 협의 과정을 재개하기 위해 이 기회를 잡고, 한반도 상황을 긍정적 방향으로 진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그는 이 밖에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과 한국의 친구이자 가까운 이웃으로서 중국은 남북한이 관계를 개선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화해와 협력을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독립되고 평화로운 통일을 실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그들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통일)는 남북한 양측의 근본 이익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나. 미·북 관계

##### ● 北, 美항모 스쳐만 가도 ‘펼쩍’...칼 빈슨 입항 비난(1/18)

- 최근 미국 항공모함 칼 빈슨호(9만3천t급) 전단이 한국과 일본을 거쳐간 것에 대해 북한이 ‘군사적 도발’ 운운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논평에서 “미국 본토 방위를 주임무로 하는 항모전단이 작전 무대를 동북아로 옮긴 것은 매우 위험한 사태”라면서 “미국이 대규모 해상 기동타격 무력을 파견해 일본, 남조선과 불장난 소동을 피우는 것은 도전적인 군사도발”이라고 비난했다.
- 신문은 이어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높이고 어느 때든 북침 전쟁의 포성을 울리려는 미국의 호전적 입장과 전략적 기도가 여기에 내포돼 있다”면서 “이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바라는 인민들의 지향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 신문은 또 “지금 조선반도는 대화냐 대결이냐, 평화냐 전쟁이냐의 중대한 분기점에 있다”면서 “유관측들은 대결을 끝장내기 위해 대화와 협상탁에 나와야 의사소통과 신뢰를 도모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 한편 1983년 3월 취역한 니미즈급 항모 칼 빈슨호는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부산항에 기항했는데, 한미연합사령부는 칼 빈슨호의 부산 입항에 앞서 “통상적인 방문이며 승무원들은 지역봉사활동, 한국해군과 체육행사 등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다. 중·북 관계

### ● 北, 中무단장에 여성노동자 2천명 파견추진(1/19)

- 북한이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무단장(牧丹江)시에 여성 노동자 2천 명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중국은 경제 협력의 한 모델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훈춘(琿春)과 투먼(圖們) 등 북-중 접경지역에 북한 노동자들을 파견하는 방안을 협의해왔으나 아직 성사되지는 않았음.
- 19일 무단장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기범 주선양 북한총영사가 지난 7일 무단장시를 방문, 장징촨(張晶川) 시장과 만나 북한의 여성 노동자 2천 명을 무단장 동닝(東寧)현에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했음.
- 무단장의 한 소식통은 “이 총영사와 장 시장이 이날 점심을 함께 하면서 이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며 “양측이 북한 여성 근로자 파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음.
- 이 소식통은 “장 시장이 이 자리에서 동닝현 관계자들에게 북한 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도록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이날 저녁 쑤지순(孫吉舜) 동닝현 부서기와 쑤후이(孫輝) 동닝현 외사판공실 주임 등이 이 총영사를 따로 만나 진전된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 이 총영사는 동닝현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여성 노동자들의 무단장 파견이 성사될 수 있도록 양측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자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양측은 추후 다시 만나 파견 시기와 근로 조건 등을 논의하기로 했음.
-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무단장에 파견되면 목재를 여러 겹으로 합쳐 가공하는 집성목 제조 공장에서 일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닝현은 헤이룽(黑龍江)성 최대의 목재 가공 산지로, 조선족이 운영하는 대규모 집성목 공장이 가동되고 있음. 집성목 제조는 섬세함이 필요해 주로 여성들이 일하고 있음. 조선중앙통신이 지난해 4월 집성목 목재가공기술에 관한 과학영화를 제작했다고 보도했을 만큼 북한은 이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임.
- 이 총영사는 이날 헤이룽장의 창젠(昌建)그룹 차오수구이(喬樹貴) 회장과도 만나 북한에 옥수수 가공공장을 건립할 것을 제의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 총영사는 이 자리에서 창젠그룹이 북한에 옥수수 가공공장 건립하는 대가로 철광석과 석탄을 제공할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음. 주선양 북한 총영사가 무단장을 방문한 것은 10년 만에 이번이 처음임.
- 선양 북한 총영사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중국 동북 3성의 성(省)과 시(市) 외사판공실 관계자들을 북한이 운영하는 선양 칠보산호텔로 초청, 북한 정권 건립 62주년 경축 행사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무단장시와 북한 식당 평양관을 무단장에 개점하기로 합의했음. 이에 따라 지난해 무단장에 평양관이 문을 열어 성업 중인 가운데 최근 분점 개설이 추진되고 있음.



● “北, 황금평 개발 위한 특별법 마련”(1/17)

- 북한이 최근 중국과 합작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압록강의 섬 황금평을 특구로 개발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특별법도 이미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17일 “북한 당국이 황금평을 공업단지로 개발할지, 라선지역과 같은 특구로 개발할지를 놓고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특구로 개발하기로 결론 내렸으며 이를 위한 특별법도 이미 마련했다”고 말했다.
- 이 소식통은 “북한에서는 특구로 지정돼야 외국인에게 토지 임대 가능하다”며 “황금평을 특구로 지정기로 한 것은 중국 등 외국 투자자들에게 토지를 임대, 개발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애초 황금평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자금 여력이 없는 탓에 중국에 임대하기로 최종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 그는 또 “황금평 특구 지정을 위한 관련법은 이미 내각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 상태이지만 과거에 추진했다가 외자 유치가 안돼 포기했던 신의주 특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중국과 투자 협상이 완료되는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황금평 개발은 최근 대풍투자그룹을 대신해 북한의 외자 유치 전담 기관으로 등장한 합영투자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 합영투자위는 지난해 12월 말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와 라선지구와 황금평을 임가공 단지 등으로 합작 개발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 中정부, 인민해방군 북한 주둔설 공식 부인(1/17)

- 중국 정부가 인민해방군의 북한 나선특별시 주둔설을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1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민해방군의 나선특별시 주둔설) 관련 보도가 언급한 내용은 완전한 허구”라고 밝혔다.
- 그는 “최근 중국이 나선에 소수의 군대를 파견해 중국이 투자한 항구 시설과 자국민을 보호하기로 했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이같이 말했다.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생하는 환구시보도 이날 1면 머리기사로 익명의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중국군의 나선 주둔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라며 “중국은 유엔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단 한 명의 군인도 해외에 파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 이 신문은 “한국 매체가 중국군의 북한 주둔설을 얘기하는데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군의 북한 진입을 바라지 않는 감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북한에 군을 진입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는 중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왕린창(王林昌)의 말을 소개했다.





- 환구시보는 군대가 주둔하면서 기업과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도라면 북한에서 경제 개발이 될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실제로 북한의 치안은 매우 좋은 상태라고 덧붙였음.
- 상하이 푸단대학의 한반도 전문가 차이젠 교수는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중국군의 나선 주둔설은 최근 한반도 긴장 국면에서 북·중 군사관계가 강화되고 있는데 대한 남한의 경계심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음. 최근 국내 일부 언론은 북한의 경제특구인 함경북도 나선에 중국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작년에도 국내 매체에서 중국군의 북한 주둔설을 보도해 여러 루트를 통해 확인 작업을 벌였으나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중국군 북한 주둔설이 계속 제기되는 까닭은 양국간 경협이 활발해지는 추세와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 中전문가 “해방군 北주둔설 사실무근”(1/16)

- 중국의 군사전문가가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북한 경제특구 주둔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중국 군사전문가 장평(江風)은 중국군 북한 경제특구 주둔설에 대해 “인민해방군이 북한에 주둔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홍콩 문회보(文匯報)가 16일 보도했음.
- 장평은 또 중국 인민해방군은 현재 유엔 평화유지 활동 및 소말리아 해적 퇴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군인 이외에 단 한 명의 군인도 해외에 파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음.
-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15일자 보도를 통해 ‘북한의 경제특구인 나선특별시(함경북도에 위치)에 중국군이 최근 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음. 조선일보는 또 중국군의 북한 주둔은 1994년 12월 중국군이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한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 라. 일·북 관계

##### ● 北, 日납치상 발언 비난·“대화 재개 차단용”(1/17)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일본 나카노 간세이(中野寬成) 납치문제 담당상의 발언을 비난하면서 “일본의 극우보수세력이 대화분위기에 불안을 느끼면서 새 내각이 조일(북일)대화 재개에 나서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이 통신은 ‘대화 분위기를 해치려는 위험한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나카노 납치문제담당상이 14일 우리에게 대해 ‘독재국가’라는 발언을 했다”며 “문제는 그의 악담이 조일 사이에 대화 재개문제가 상정되고 협상의 방법으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긴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한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때에 나온 것”이라





고 지적했음.

- 중앙통신의 이번 보도는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이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일본과 북한간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말해 북일간에 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는 가운데 나와 더욱 눈길을 끄. 통신은 “국제사회는 대화 분위기에 역행해 나서는 일본우익세력의 위험한 움직임을 각성 있게 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마에하라 외무상은 15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일대화 추진에 앞서 남북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음.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미중정상회담 앞두고 ‘한미 24시간 협의체제’>(1/19)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19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간의 외교협의 체제도 강화되고 있음.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안보 이슈 중 북한 문제가 최고 의제가 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한미 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서울과 워싱턴의 외교채널을 총동원한 사실상 24시간 협의체제를 갖추고 정상회담 직전까지 물밑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에서는 외교부와 청와대, 주한미국대사관 등이 주축을 이뤄 중국 측의 한반도 문제 제기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협의중이며, 워싱턴에서는 주미한국대사관과 백악관, 국무부 라인이 가동되고 있음.
- 한덕수 주미대사는 미중정상회담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백악관의 제프리 베이더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총괄담당 국장 및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과 거의 매일 전화통화를 하거나 만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한 대사는 정상회담이 열릴 19일에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양국의 공동대처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음.
- 정상회담 이후에는 미국 측에서 고위급 인사를 한국에 보내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대응 방향도 조율할 예정임.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채널을 통해 매일 한미간에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 오바마-후진타오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8일까지 파악된 바로는 일단 이번 미중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새롭고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힘들 전망임. 또 미중 양국이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진 공동성명에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기존의 것 이



상의 새로운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워싱턴 소식통은 “한반도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등 이미 공유하고 있는 입장 외에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기 힘들 것”이라면서 “한국의 우려를 미국도 다 알고 있으며, 중국이 요구하는 것 중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 한·미, 미사일사거리 연장 협상 착수 (1/19)

- 한국과 미국이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로 제한한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하는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 정부 소식통은 “한·미가 작년 말부터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의에 착수했다”면서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에 양국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협이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어느 정도 늘릴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며 “다만, 1천km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도 최근 확정된 국방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미사일 사거리를 현재 300km에서 1천km 이상으로 늘리는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1979년 처음 만들어진 뒤 2001년 개정된 미사일 지침은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 때문에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우리나라는 사거리 3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개발할 수 없었음.
- 군당국과 일부 전문가들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남해안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1천km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북한은 최대 사거리 3천~4천km 탄도미사일까지 실전 배치했으나 우리 군의 현무와 에이테킴스 등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165~300km에 불과한 실정임.

나. 미·중 관계

● 中양제츠 “중미협력 신국면 열어”(1/23)

-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부장은 23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 사이의 협력 동반자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자평했음.
- 양 부장은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중미관계에 있어 새로운 사고와 행동이 필요한 시점에서 후 주석은 구동존이(求同存異)와 평등호신(平等互信)을 강조했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여기에 동의하면서 후 주석의 방미가 미중관계 발전에 강한 동력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 양 부장은 미중 양국이 정상회담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상호 존중하고 윈윈하는 중미관계를 건설해나가기로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 그는 이어 “전략적 상호신뢰를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가가 향후 중미 관계의 중요 과제였다”며 “후 주석은 양국이 서로가 선택한 사회제도와 발전 방식을 존중하면서 관계를 발전시켜나가자고 제안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전략적 상호신뢰를 강화하자는 후 주석의 의견에 완전히 동의했다”고 말했다.
- 양 부장은 이 밖에도 한반도 정세, 이란핵 문제, 수단 문제, 기후변화 등 국제 문제에서도 양국 정상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점도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다.
- 아울러 양 부장은 중국이 미국에 요구한 시장경제지위 인정과 첨단 제품 금수 해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실익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무역 분야에서의 관심사를 진지하게 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 한편 이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국제 여론이 후 주석의 방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기사에서 후 주석의 방미를 호의적으로 다룬 외국 언론매체의 보도 내용만을 추려 집중적으로 보도했음.
- 인민일보는 “후 주석의 방미는 연일 국제사회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며 “각국 매체는 후 주석의 방미를 자세히 소개하는 한편 긍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번 방문이 깊은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고 소개했음. 후 주석은 18~21일까지의 나흘간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22일 오후 베이징에 도착했음.

#### ● “후진타오, 美 바이든 부통령 직접 초청”(1/22)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에게 중국 방문을 직접 초청했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21일 보도했음.
- 신문에 따르면 후 주석이 워싱턴 도착 이틀째인 19일(이하 현지시간) 바이든 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주최한 오찬에서 초청을 했고 바이든 부통령이 이를 수락했음. 이 오찬에는 1970년대 미중관계 정상화의 주역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도 참석했음.
- 명보는 “중미 양국이 고위층 상호방문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바이든 부통령의 방중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 아울러 후 주석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채택된 공동성명에도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믿을 수 있는 군사적 관계가 두 나라 간 긍정적이고 호혜적인 관계에 필수적”이라면서 “올해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의 방중을,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의 방미를 환영한다”고 명시돼 있음.

#### ● “오바마, 후주석에 아시아 미군 재배치 경고”(1/21)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비공식 만찬에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미군을 재배치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경고했다고



-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20일 보도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만찬에서 후 주석에게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미군 재배치와 방어적 자세의 변화,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훈련 강화 등 장기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 발언은 지난달 후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 이번 비공개 만찬에서도 재차 강조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방어적 자세의 변화와 관련, 선제 공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적 위협이 되는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중국에 큰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말했다.
  - 중국은 지난해 미국 항공모함이 서해(중국명 황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에 참여한 데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음.
  - 중국의 태도 변화는 천안함 사태에 대해 북한을 비난하지 않는 등 완전하지는 않지만 정상회담 직후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해 처음으로 우려를 나타내는 등 이전과는 다소 달라졌음.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중국이 민감해하는 군사훈련 등을 거론하며 직접 압박한 것이 일부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됨.

#### ● 美中 ‘하나의 중국’에 이견 노출(1/21)

- 미국과 중국이 20일 정상회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두고 이견을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음. 영문 공동성명에는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표현돼 있으나 관영 신화통신이 배포한 중문 공동성명에는 ‘미국의’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지고 ‘하나의 중국’으로만 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영문성명에는 “미국측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추구한다고 말했다”(The U.S. side stated that the United States follows its one China policy)로 표현되어 있음.
- 그러나 중문성명에는 ‘미국의’라는 표현은 사라지고 “미국측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추구한다고 말했다”(美方表示奉行一個中國政策)로 바뀌어 하나의 중국 정책에서 이견이 노출됐음.
-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대만에 대한 방위를 약속하고 무기 판매를 의무화하고 있는 대만관계법이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이지만,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대만관계법은 인정하지 않는데서 차이가 있음.
- 영문과 중문 성명이 다른 이유는 중국 국내 정치 사정상 중문으로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고 번역하면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이에 대해 대만 관영 중앙통신은 영문과 중문 성명의 하나의 중국 표현 차이는 “쌍방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해 이견이 있음을 보여 준다”면서 “미국은 미국측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측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다르다”고 말했다.





- 이 통신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0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관계법, 하나의 중국, 미-중 3개 공동성명의 기초위에서 미중관계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의 뚜렷하게 다른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 ● 후진타오 “中 패권·팽창주의 추구안해”(1/21)

- 미국을 방문중인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20일 “중국은 앞으로 패권이나 팽창주의 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후진타오 주석은 이날 워싱턴에서 미중관계위원회와 미중실업인협회 등이 주최한 오찬행사에 참석, 미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상대로 연설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 일각에서 일고 있는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에 대한 우려 불식을 시도했음.
- 후 주석은 특히 중국은 앞으로 주요 문제에 대해 미국과 보다 긴밀하고, 신뢰를 넓혀가는 관계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후 주석은 그러나 티베트와 대만문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는 중국의 영토 통합과 관련된 문제이며, 핵심적 이익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음.
- 그는 특히 “우리는 현재 법치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 중”이라고 강조하고 “미국과 중국간 관계는 평등과 상호존중의 정신에 입각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국 기업인들 모임에 참석해 오찬연설을 하는 것으로 워싱턴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후진타오 주석은 이날 오전에는 미 의사당을 방문,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존 베이너 하원 의장 등 의회 지도자들과 양국관계에 대해 대화를 나눴음.
- 베이너 의장과 리드 원내대표는 19일 저녁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 주최로 열린 국민만찬에 불참했고, 리드 대표는 앞서 TV인터뷰에서 후 주석을 ‘독재자’로 칭하기도 했었음. 의회 지도자들은 후진타오 주석과의 면담에서 중국의 인권문제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등 백악관에 비해 냉랭한 분위기를 보였다.
- 베이너 의장은 후진타오 주석과의 면담후 “좋은 만남을 가졌으며, 모든 주제에 대한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를 희망했다”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데 대한 우려도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 하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민주당의 하워드 버만 의원은(캘리포니아주)은 “의회 지도자들과 후주석간의 면담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劉曉波) 문제도 매우 강력하게 제기됐다”고 전했다.

### ● <“北 규탄” 중국반대로 공동성명 못넣어>(1/21)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간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공동성명이 도출되기까지 양국간





- 에 매우 힘겨운 줄다리기 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음.
- 미국에서는 이번 협상을 커트 캠벨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담당했음. 캠벨 차관보는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을 방문했고, 18일 중국 대표단이 미국에 도착한 이후에도 문안 협상을 계속했음.
  - 하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의 입장이 완강함에 따라 남북대화 우선과 북한의 우리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공동성명 문안이 합의되기까지 큰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미중간의 팽팽한 협상은 정상회담이 열린 19일 새벽 5시경까지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음. 협상 과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20일 “양측간에 매우 터프한 협상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도 미·중간의 정상회담에 담긴 북한 관련 내용이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미국측과 24시간 협의 체제를 가동하며 밀접한 물밑 조율을 벌였음.
  - 한·미 양국은 당초 이번 공동성명에 담긴 북한의 농축우라늄에 대한 미·중간의 우려(concern)를 넘어서 북한을 규탄한다는 내용을 집어 넣으려 했음. “북한의 농축우라늄은 국제의무 위반이고 이를 규탄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시키려고 했다는 것임.
  -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UEP 문제에 대해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못하겠다고 버텼다고 함. 그런 중국을 설득하고 압박해서 UEP에 대한 우려라는 표현이 나왔음. 중국의 UEP 문제에 대한 우려 표현은 그동안 농축우라늄 문제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던 것을 감안하면 큰 변화임.
  - 백악관과 국무부도 이번 공동성명에서 UEP에 대해 중국이 우려를 표명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공동성명에 한미 양국이 원하던 문안을 100%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후 주석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국제공동체는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북한의 약속위배이며, 국제적 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분명한 입장을 밝혔음.
  - 워싱턴 소식통은 “한미 양국이 원하는 100%를 얻지는 못했지만, 북한의 UEP 문제와 남북대화에서 중국의 동의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 “美·中 UEP 논의로 北긴장완화”(1/21)
- 중국 추이톈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은 20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농축우라늄 활동에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 “북한 정세의 (긴장) 완화에 적극적인 작용을 가져다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음.
  -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 주석을 수행한 추이 부부장은 이날 양국 정상회담 후 워싱턴에서 별도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이 부부장의 발언은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공조를 강화해 북한 핵



문제의 타개를 위한 환경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강조한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해석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12월 북한의 우리늄 농축시설 건설, 연평도 포격 이후 후 주석과 가진 전화회담에서 북한의 도발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하기 위해 중국의 협력을 요청한 바 있음.
- 추이 부부장의 발언은 중국측이 이를 받아들여 미국에 다가서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통신은 풀이했음.
- 지지(時事)통신은 중국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우리늄 농축에 우려를 나타낸 것과 관련, 추이 부부장은 “조선(북한)이 공언한 계획에 우려를 표명했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음. 다만 지지통신은 지난해 11월 북한에서 새로운 우리늄 농축시설의 존재가 확인된 이후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은 처음으로, 미국과의 협조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 통신은 또 추이 부부장이 “북한은 미국 학자에 우리늄 농축시설 보유를 알렸지만, 중국은 계획을 보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 북한 농축시설의 존재를 몰랐음을 간접 시사했음.

#### ● 中 “미중관계, 새로운 단계로”(1/20)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설정했다”고 평가했음.
- 홍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앞으로 중미관계가 발전해나갈 방향을 설정하고 중점 영역에서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공통 인식을 갖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음.
- 그는 “두 정상이 새 시대의 조류에 순응해 공동 노력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양국이 서로 존중하고 동등하게 호혜적인 협력동반자 관계를 맺어가기로 했으며 이는 양국 인민과 세계의 공통된 이익”이라고 말했음.
- 홍 대변인은 그러면서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다른 국제적 동반자들 및 국제기구와 더욱 광범위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음.
- 이어 대만문제에 언급, “중미 양국이 대만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강조하고서 이와 관련한 미중 공동성명의 내용을 전했다.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에 “중국 측은 대만문제가 중국의 주권 및 영토 통합 문제와 관계돼 있음을 지적했으며 미국측이 이 문제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다”고 적었고, “미국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3차례의 미중 코뮈니케를 준수하며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 홍 대변인은 아울러 미중 양국이 북한과 이란핵, 수단문제, 그리고 군축을 포함한 국제이슈 등에서 중요한 공통 인식을 이뤘다고 덧붙



였음. 그는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중국 인권 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중국은 인권보호를 중요시하며 개혁개방이 진전되면서 부단히 진전되고 있다”고 말해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음.

### ● <후진타오 방미> 中언론, 회담성과 환영(1/20)

-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방미를 1971년 ‘핑퐁외교’ 이후의 주요 외교 이벤트로 묘사하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중국 언론들은 19일(현지시각) 이뤄진 후 주석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풍부한 성과가 나왔다면서 크게 환영했음.
- 중국 매체들은 두 정상이 ‘긍정적이고 협력적이며 포괄적인’ 양국관계를 맺기로 약속한 점에 주목하면서 중·미관계가 대화와 협력을 기조로 하는 새로운 역사의 문턱에 들어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 관영 신화통신은 20일 새벽 정상회담 직후 낸 속보에서 “양국 정상이 향후 중·미관계의 중요 방향을 계획하면서 협력의 영역을 심화시키는 등 풍부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음.
- 신화통신은 “중·미 쌍방은 모두 양호한 중·미관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양국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상호 윈윈하는 협력동반자 관계를 건설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신화통신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환영식 소식을 전하면서도 “높은 곳에서 멀리 바라보는 등고망원(登高望遠)과 같은 점을 추구하면서 차이점은 남겨두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정신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장기적이고 건강한 발전으로 이끌어 나가 중·미 동반협력관계의 새 역사의 장을 열자”는 후 주석의 발언 내용을 부각시켰음.
- 그러면서 신화통신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양국이 서로의 발전 방식과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후 주석의 말도 비중 있게 소개했음.
-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도 이날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후 주석이 양국 동반협력 관계의 새 역사의 장을 열자고 밝힌 점에 주목했음. 신문은 후 주석의 환영식 연설 장면 사진을 크게 게재하고 조 바이든 부통령 내외가 공항 영접을 나오고 미국 측이 21발의 예포를 발사하고 적색카펫을 설치하는 등 미국이 크게 환대했다고 소개했음.
- 미국의 극진한 환대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중국 매체들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환영한다는 뜻의 중국말인 ‘환잉’이라는 말로 환영식 연설을 끝맺는 우호의 제스처를 보인 것을 제목으로 뽑는 등 큰 의미를 부여했음.
- 뉴스전문 채널 등을 통해 후 주석의 방미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는 관영 중국중앙(CC)TV는 무역불균형 문제와 위안화 절상과 관련, 자국이 450억달러 규모의 수입 패키지를 미국에 제시한 것을



강조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중국에서 ‘전도(錢道)’가 유망하게 됐다고 평가했음.

- 중국 언론들은 또 오바마 대통령이 후 주석을 위해 화려한 국민만찬을 베푸는 것은 지난 10년간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음을 의미한다며 크게 반색했음.
- CCTV는 20일(현지시간) 메인 정오뉴스를 통해 성대하게 펼쳐진 공식 환영식 장면을 주요 뉴스로 계속 내보냈음. 그러나 이 방송은 후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고 답변한 ‘민감한’ 부분은 거의 보도하지 않았음.
- AP통신에 따르면 베이징 시민 역시 후 주석의 국민 방문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사무직원인 쑤빈씨는 “중국과 미국은 적이 아니며 서로의 발전을 서로가 필요로 하는 협력관계”라고 말했고 명모씨도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강해졌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이번 방문은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음.
- 주평(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민감한 이슈에 대한 양국 정상 간의 솔직한 대화는 양국 관계를 성숙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민감한 이슈를 통해 양국 협력을 위한 새로운 노선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 <후진타오, 정상회담서 관계개선 5개항 제의>(1/20)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20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양국 관계개선을 위해 평등하고 상호신뢰적인 정치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음.
-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후 주석은 정상회담 석상에서 미·중은 국제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대 대국으로 전면적인 관계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양국 관계개선을 위한 5개항의 제의를 내놓았음.
- 후 주석은 우선 평등하고 상호신뢰적인 정치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제의하면서 양국이 서로의 사회 체제 및 발전경로 선택과 주권, 영토통합 등을 존중한다면 양국 관계는 올바른 궤도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후 주석은 이어 양국이 경제분야에서 전면적으로 협력하고 상호이익을 주며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심화시킬 것을 제안했음.
- 이와 관련, 그는 중국이 무역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노력하고 자유무역을 주창하며 가능한 한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하 라운드를 추진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혔음. 아울러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제한을 완화하고 중국의 완전한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을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음.
- 후 주석은 또 양국이 전 지구적 협력을 통해 도전에 공동대응 할 것을 제의했음. 그는 한반도 정세, 이란 핵문제, 금융 및 국제무역 부문의 국제기구와 제도개혁, 기후변화, 테러리즘의 문제에 공동으로 대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네번째로 후 주석은 양국 국민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우호사업을 추진하자는 안을 내놓았음. 이와 관련 그는 미국은 주(州)지사, 중국은 성(省)장이 참여하는 ‘주성장(州省長) 포럼’이 순조롭게 출범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음.
- 후 주석은 마지막으로 양국 고위층들이 양국 깊숙하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교류하는 교류 모델을 정착시키자고 제안했음.
- 이러한 제의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역시 중국과의 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며 상호존중과 상호이익의 바탕위에서 양국 관계를 강화하려 한다고 응답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미국은 세계 경제성장 촉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전략적 상호신뢰 심화와 협력강화를 위해 중국과 함께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면서 기후변화 문제를 처리하는 데서 중국의 중요한 역할을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 <후진타오 방미> 미중, 핵안보 협력 강화기로(1/20)

- 미국과 중국이 핵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음. 미중 양국은 19일(현지시간)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에 핵안보센터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음.
- AP통신은 이와관련 “양국 에너지 담당 관리들이 서명한 합의에 따라 두 나라의 공동 출자로 중국에 핵안보센터가 설립될 것”이라면서 “미 관리들은 이 합의를 안보협력 확대의 서막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이 통신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는 중국의 영향력을 이용해 북한의 대남 도발과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고 이란의 핵개발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있음. 미국은 러시아와의 핵안보 협력 분야에 수십억달러를 쏟아붓고 러시아의 정치적 협력을 얻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으나 중국과는 핵안보 분야 협력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었음.
- 핵안보센터는 작년 4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먼저 제안했으며, 이번 합의에 따라 핵안보센터를 세우는 자금은 중국 측이 대부분을 부담하고 미국은 기술과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 중국 원자력에너지청 대표와 합의안에 서명한 스티븐 추 미국 에너지 장관은 이번 합의가 핵안보 강화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음. 양국은 앞으로 핵시설 안전과 핵물질 관리 능력을 제고하는데 협력할 전망이다.
- 미 관리들은 나아가 중국과 핵 재난 및 테러에 대비한 공동 훈련을 실시하는 동시에 핵탐지 기술을 공유하기를 기대했음. 양국은 또한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도 핵안보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 <미중정상회담 공동성명 뭐가 담겼나>(1/20)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41개항에 걸쳐 미중 양국간 정치·외교·안보·경제 사안과 더불어 북한과 이란 핵문제 등 국제이슈가 담겨 있음.
- 공동성명은 우선 서론에서 “두 나라는 상호 존중과 호혜관계에 입각해 협력적인 관계를 건설하는데 함께 노력한다”고 적었음.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에서도 상호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며 포괄적인’ 양국관계를 구축하기로 하는데 합의했음.
- 이는 지난해 우여곡절을 겪었던 미중 양국이 적어도 ‘대립과 견제’의 구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 구도로 진입한 것을 암시한다는 지적임.
- 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갈등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와 안정 속에서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가는 길을 닦겠다는 목표를 밝혀왔다는 점에서 이것만으로도 일단 ‘절반의 성공’을 했다는 평가도 있음.
- 미중관계에서 양국이 서로를 ‘인정’한 대목이 눈길을 끄. 공동성명에 “미국은 강력하고 번영하며 성공적인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서 평화와 안정, 지역 번영에 기여하고 있음을 환영한다”고 적은 것. 이를 두고 미국이 ‘뜨는’ 중국을 인정하고, 아울러 중국은 미국을 아태지역 국가로 인정하고 공존 의지를 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
- 그러나 중국이 심혈을 기울여온 대만문제에 미국은 이번에도 ‘속시원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음. 미국은 “대만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중국과 그 해법은 달리 했음.
- 공동성명에 “중국 측은 대만문제가 중국의 주권 및 영토통합 문제와 관계돼 있음을 지적했으며 미국측이 이 문제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다”고 적었고, “미국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3차례의 미중 코뮈니케를 준수하며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다른 입장을 적었음.
- 중국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여러 채널을 통해 작년초 미 국방부가 64억달러 상당의 첨단무기를 대만에 판매키로 한 사실을 거론하고 이는 중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인 만큼 재발방지를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절당한 셈임.
- 그러나 대만에의 무기판매 때문에 막혔던 미중 군사교류에 대해서는 나름 서광이 비치고 있다는 지적임.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믿을 수 있는 군사적 관계가 두 나라간 긍정적이고 호혜적인 관계에 필수적”이라고 확인하고 실질적 대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의 방중을,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의 방미를 환영한다”고 언급해 올해에 미중 양국의 고위층 교



- 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미중간 전통적인 갈등사안인 인권 문제에서도 시각은 달랐음. 공동성명에 “미국은 인권증진과 민주주의가 외교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고 중국은 어느 나라의 내정간섭도 안된다”고 적어서 서로 다른 시각을 보였음.
  - 회답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와 중국 정부간 대화를 요청했고, 후 주석은 “인권의 보편성을 존중하지만, 나라마다 처한 사정이 다르다는 점도 참작해야 한다”고 맞서 양측 간 인권대화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음.
  - 한반도 관련 사안은 공동성명 18번째 항에 기술됐음. 우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고,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이뤄진 약속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위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음.
  - 그 가운데 “미중 양국이 한반도 긴장 고조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남북관계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진정성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인 조치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미중은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농 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고 적은 점이 눈에 띄. 중국이 적어도 북한 UEP 문제와 남북대화에서 과거와 다른 ‘진전된’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미중 양국은 극단주의 대처, 핵무기 및 대량살상 무기와 전달수단의 확산 방지, 핵안보 강화, 전염병 및 기아퇴치, 해적행위 소탕, 자연재해 예방, 사이버 보안강화, 초국가적 범죄대처, 인신매매 단속 등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큰 다툼없이 의견을 모았음.
  - 미중 양국이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핵 비확산국제체제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국에는 핵무기없는 세상을 실현하기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한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임.
  - 그러나 미중간 핵심 경제현안인 위안화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국 ‘대립’이 현실화돼 공동성명에 ‘일치된’ 문구를 넣지 못했음. 회답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간 교역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위안화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면서 환율 절상을 강하게 압박했으나 후 주석은 미중 무역 불균형은 위안화 환율 때문이 아니라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음.
  - 결국 중국은 공동성명에서 위안화 환율개혁과 환율 신축성 제고, 내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는 선에서 위안화 문제에 대한 입장이 정리됐음.

● <후진타오 방미> 美의회 ‘신고식’ 흑독할 듯(1/20)

- 벼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흑독한 신고식



- 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임.
- 후 주석은 국민방문 이틀째인 20일(현지시간) 중국의 인권문제와 경제정책, 이란 및 북한 핵문제에서의 태도 등을 놓고 중국에 대한 비판에 앞장서 온 미국 의회의 지도자들과 별도로 회동할 예정임.
  - 미국 의회 지도자들 중에는 후 주석과 만나기 직전 언론과 인터뷰에서 “후 주석을 독재자”라고 표현하며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은 경우도 있음.
  -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8일 저녁 자신의 지역구인 네바다에서 KSNV TV에 출연, “나는 워싱턴으로 돌아가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이라면서 “그는 독재자이며, 그는 그들이 갖고 있는 정부의 방식을 통해 매우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이같이 말한 직후 “아마 나는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유감을 표시하며 진화에 나서면서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종류의 정부를 갖고 있다는 정도가 내가 말하고자 한 내용의 절제된 표현일 것”이라고 말했다.
  - 리드 원내대표는 존 베이너 연방 하원의장과 미치 매크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주최하는 국민만찬에도 불참했음. 이들은 후 주석과 다음날 별도로 만날 것이기 때문에 불참한다고 설명했지만 의회를 방문한 후 주석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음.
  - 공화당 소속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하원 외교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안보와 인권, 경제문제 등에 대한 후진타오 주석의 피상적인 약속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후 주석에게도 전달하기로 했음. 그는 “우리는 급부상하는 중국이란 세계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인을 일깨우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양당 소속 의원 84명은 공동서한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유례없는 높은 실업률 속에서 중국의 불공정 경쟁에 대한 미국의 인내심은 한계상황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의 국제무역 규정을 무시하는 처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비판했음.
  - 이에 앞서 레티넨 위원장은 이날 하원에서 ‘중국의 행동이 미국에 미칠 영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브리핑에서 “중국이 만일 (한반도 문제의) 책임 있는 당사자라면 서방언론들이 보도한 대로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도전해 가면서 베이징 공항을 경유해 북한의 미사일 부품이 이란으로 가는 것을 허용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음.
  - 레티넨 위원장은 또 “중국이 책임 있는 당사자라면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한국전쟁의 흐름을 바꿔놓았던 서해에서의 미 해군 활동을 비난할 수는 있는 것이냐”, “중국의 탈북자강제 송환은 전 세계인들의 우려스러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음.



- 민주당 소속의 상원의원인 찰스 슈머(뉴욕), 데이 스타브노우(미시간), 밥 케이시(펜실베이니아) 등 3명은 위안화 약세에 대처하는 법안을 이번 주 중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후 주석의 방중 직전부터 중국을 압박해 왔음.
- 다른 의원들은 중국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劉曉波)의 수감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의 인권 실태를 비판했음. 공화당 소속의 댄 로러배처 연방 하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후 주석을 민주국가의 지도자인 것처럼 환대한 것은 잘못됐다”면서 “미국은 중국 국민들과 직접 교류해야 하며 중국인의 탄압자이자 살인자를 이렇게 존중해 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음.

### ● <후진타오 방미> “두 정상, 위안화 실질 협의”(1/20)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9일(이하 현지시각)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위안 환율에 대해 “실질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미 정부 관리가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위안 환율 문제가 경제 불균형을 개선할 필요성에 관한 광범위한 대화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 한편 중국 외교부가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미중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따르면 양측은 국제 경제에 미치는 두나라 통화 정책의 효과를 주시하기로 합의했음.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달러 환율의 “과다한 등락”을 계속 견제하는 한편 중국도 위안 환율 개선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것임.

### ● <후진타오 방미> 中, 美 성대한 영접에 반색(1/19)

- 중국 언론매체들은 19일 조 바이든 부통령 부부가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직접 나와 후 주석을 맞았고 레드 카펫과 미군 의장대의 사열이 준비되는 등의 성대한 의전이 이뤄졌다고 보도했음. 아울러 백악관 주변과 워싱턴 시내 중심부에 자국 국기인 오성홍기(五星紅旗)가 성조기와 함께 내걸려 적색 물결을 이뤘다고 전했다.
- 관영 신화통신과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지난 1997년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의 방문 이후 14년만에 국민자격으로 미국을 찾은 후 주석은 현지시간으로 18일 오후 4시께 도착해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면서 도착 직후 서면으로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음.
- 이들 매체에 따르면 후 주석은 성명에서 “중미 양국이 수교후 32년간 전반적으로 양호한 발전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중요한 국제 및 지역 문제를 포함해 광범위한 영역에서 협력의 성과가 좋다”고 평가했음.
- 후 주석은 그러면서 “지금의 국제정세는 복잡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양국의 공동 이익이 확대되기도 하지만 공동 책임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방미의 목적은 양국이 서로 신뢰를 증진하고 우정을 강화하고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





- 과 중미 관계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그는 아울러 “중미 관계가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양국 국민의 근본이익에 부합하고 세계평화에 유리하다”며 “중국은 미국과 서로 존중하고 호혜공영의 기초에서 양국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후 주석 방미에 왕치산(王岐山) 부총리, 링지화(令計劃) 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 왕후닝(王滬寧) 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 등이 수행했다고 전했다.
  - 왕 부총리는 중국 경제의 실무사령탑이라는 점에서 위안화 환율 절상 문제와 미중 간 무역갈등 등의 경제사안 전반에 대해 챙기는 인물임. 링 중앙판공청 주임과 왕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은 정치·외교·안보·경제 등의 현안을 아울러 후 주석을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 국무위원은 외교 실무사령탑으로 북한과 이란 핵문제 등의 외교·안보 사안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고 있음.
  - 중국 언론매체들은 후 주석이 워싱턴 도착후 첫날 오바마 대통령과의 비공식 만찬을 시작으로 19일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갖고 백악관 국민만찬 등의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소개했음. 이들 매체는 그러나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큰 틀에서 갈등과 대립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중국 언론매체들은 양국 정상간에 큰 틀의 합의를 기대하면서도 회담 의제로 오른 현안이 대부분 합의도출이 쉽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분위기임.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미중 양국의 기존 입장으로 볼 때 핵심의제인 북한 핵 문제와 위안화 환율조정 문제에서 합치된 의견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비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데일리는 지난해 12월 하순 네티즌 1천443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90%가 미중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54.3%는 중국이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소개했음.
- **中 후진타오 국가주석, 오늘 방미(1/18)**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미국 방문에 나섬. 후 주석은 미 동부시간으로 18일 저녁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전용기편으로 도착하며, 조 바이든 부통령 내외와 카프리스 마셜 의전장의 영접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후 주석의 이번 방미는 1997년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미 이후 14년만에 이뤄지는 중국 최고지도자의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음.
  - 중국 언론매체들은 후 주석의 이번 방미는 미국과의 평풍외교가 개시된지 40주년이 되고 21세기의 두번째 10년이 시작되는 첫 해에 이





- 뤄지는 중요한 외교행사라면서 중미관계의 새 장을 열고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음.
- 후 주석은 21일까지 3박4일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두 차례의 백악관 만찬, 미 의회 방문, 재계인사와의 회동, 시카고 방문 등의 빡빡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임.
  - 후 주석은 도착 첫 날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 관저내 ‘올드 패밀리 다이닝룸’에서 만찬을 함. 이 곳은 1800년대부터 미 대통령 가족이 식사를 해온 사적이고 친밀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친밀감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됨. 이 자리에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톰 도널던 국가안보보좌관만이 배석하며 중국에서는 왕치산(王岐山) 부총리와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이 배석할 가능성이 커 보임.
  - 이어 19일에는 백악관 남쪽 정원에서 공식 환영식이 열리고 대통령 집무실인 백악관 오벌 오피스로 자리를 옮겨 확대 정상회담이 개최됨. 회담 전에 공동성명 사전 조율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미 중 정상은 대만문제와 북한과 이란핵, 위안화 환율 등의 굵직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됨.
  - 같은 날 후 주석은 확대정상회담후 바이든 부통령과 클린턴 장관이 주최하는 국무부 오찬에 참석하며 저녁에는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와 오바마 대통령과 두번째 만찬을 하게 됨.
  - 방미 셋째날인 21일에는 후 주석은 미 의회를 방문해 상·하원 지도자들을 만날 예정이며 미·중 관계 국가위원회와 미·중 재계위원회 초청으로 오찬 연설을 하고서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로 향함. 후 주석의 시카고 방문에는 중국 최대 컴퓨터 업체 레보노, 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CIC) 대표를 비롯, 거물급 중국 기업인 수백명이 동행하며 중국이 시카고에서만 6억달러의 사업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 후 주석은 시카고에서 1박2일간 머물면서 정·재계 인사를 접견하고 경제정책 연설도 하며 시카고 근교의 중국 투자 자동차 부품공장, 미국 최초의 중국문화교육센터인 공자학원 등을 시찰하는 것으로 미국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할 예정임.

#### 다. 중·일 관계

##### ● “日中, 센카쿠 여파 각료급 교류 중단 지속”(1/23)

- 작년 9월 센카쿠(尖閣 :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 사건 이후 일본과 중국의 각료급 교류 중단이 지속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3일 보도했음.
- 이 신문은 보도에 따르면 작년 9월 센카쿠열도에서 일본 순시선과 중국의 어선이 충돌하면서 빚어진 외교 갈등이 이어지면서 국제회의를 제외한 양국간 각료급 교류가 재개되지 않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양국간 현안 논의를 위해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중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 측이 반응하지 않고 있음. 간 총리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작년 11월 요코하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전략적 호혜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각료급 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일본으로서는 동중국해의 시라카바(白樺 : 중국명 춘샤오<春曉>) 가스전 공동개발을 위한 조약체결 교섭 등 현안 협의를 위해 각료급 교류를 원하고 있지만 중국은 일본에 대한 국내 여론 악화 등을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음.
- 하지만 일본 정부는 중국과 각료급 교류가 끊겼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음.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대화 속도가 늦어지긴 했지만 정체됐다는 인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 ● “中, 日신안보대강에 우려 표시”(1/21)

- 중국이 자국을 ‘중기적 위협’으로 간주한 일본의 신방위계획대강에 우려의 뜻을 표시했다고 환구시보(環球時報)가 21일 보도했음.
- 환구시보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인용해 20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 12차 중일 안보대화에서 중국은 일본이 최근 신방위계획대강을 통과시켜 서남해역의 방위력 강화를 천명한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 일본이 작년 12월 자국의 군사력 증강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분쟁 등에 대해 ‘우려 사항’이라고 평가하는 신방위계획대강을 통과시키자 중국은 “개별 국가가 무책임한 태도로 중국의 발전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할 권리가 없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음.
-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중국의 우려에 자국의 전수방어 기본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조치는 방어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역으로 최근 시험 비행에 성공한 중국의 신형 스텔스 전투기 쟈(殲)-20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음.
- 이에 중국은 차세대 전투기는 아직 시험 단계에 있어 실전 투입이 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가고 있으며 주변국에도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양국은 지난 9월 동중국해 다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尖閣>열도) 부근에서 발생한 충돌의 재연을 막기 위해 국방 부문 사이의 연락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음. 이 밖에도 양국은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환구시보는 전했다.
- 이번 안보대화에는 중국 측에서 후정웨이(胡正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일본 측에서 벳쇼 고로 외무차관이 대표로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음.



### ● 日 총리 “중국과 전략적 호혜관계 심화 추진”(1/20)

-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20일 오후 일본 민간외교추진협회 주최로 도쿄 데이코쿠(帝國) 호텔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중국과 전략적 호혜관계를 심화하겠다는 등의 5가지 외교원칙을 발표했다.
- 간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민주당 정권의 외교원칙으로 ▲미·일동맹 기축 ▲아시아 외교의 새 전개 ▲경제 외교 ▲지구적 규모 과제 적극 대처 ▲안전보장환경의 정확한 대응을 거론했음.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 시절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문제로 뼈저린 미·일 동맹에 대해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유지·강화해야 할 관계”라며 “더욱 심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9월에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다폰위다오<釣魚島>) 주변에서 일어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의 충돌 사건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중·일 관계를 정치·경제에 국한하지 않고 광범한 분야에서 “전략적 호혜관계를 심화시키겠다”고 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였음.
- 다만 “(중국의) 투명성을 결여한 국방력 강화나 해양 활동 활발화”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아시아 외교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중국 양국과의 관계 강화에 덧붙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국간 협상틀을 활용해 ‘열린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북한에는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일본인 납북 피해자를 조기에 귀국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사이에 일어난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영유권 갈등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이 러시아의 장기적인 국익에 기여한다는 점을 이해시키기 위해” 건설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 라. 일·러 관계

#### ● 러’ 국방차관, 日 영유권 분쟁 도서 방문(1/21)

- 드미트리 불가코프 러시아 국방차관이 20일 일본과 러시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홋카이도 부근의 에토로푸섬 지역을 방문했다고 러시아 국방부 관리가 이날 밝혔다.
- 국방부 관리는 이날 일본 교도통신에 불가코프 국방 차관이 러시아령 에토로푸 섬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 대변인은 불가코프 차관이 19일부터 영유권 분쟁지역인 에토로푸와 쿠나시리 섬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이는 지난해 11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인근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쿠나시리를 방문하고 이어 이고르 슈발로프 제1부총리가 같은해 12월 에토로푸와 쿠나시리를 찾은 데 이어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됨.



- 러시아 고위관리들이 이처럼 잇따라 분쟁지역을 방문한 것은 해당 지역의 영유권 확보 의지를 재천명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이들 영토의 반환을 요구하는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됨.

#### 마. 기 타

##### ● “한중일 정상회담 5월 도쿄서 개최”(1/18)

- 한국과 일본, 중국의 3국 정상회담이 오는 5월 도쿄(東京)에서 열릴 전망이다. 마이니치신문이 18일 보도했음.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오는 5월 도쿄에서 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
- 한중일 3국은 해마다 돌아가며 정상회담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일본이 의장국임. 정상회담에 앞서 한중일 외교장관은 3월 19~20일 교토(京都)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하기로 했음.
-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이 17일 청용화(程永華) 주일 중국대사와 만나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3월 교토에서 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참고 1] <미·중 공동성명>(1/20)

(워싱턴=연합뉴스) 황재훈 특파원 = 다음은 19일 발표된 미·중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이다.

◇ 서론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2011년 1월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을 국빈방문했다. 두 정상은 이번 방문을 통해 지난 2009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했던 두 나라간의 긍정적이고 협조적이며 상호이해적인 관계를 건설하기로 한 약속이 얼마나 진전됐는지를 검토하고 재확인했다. 두 나라는 상호존중과 호혜관계에 입각해 협력적인 관계를 건설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 중·미 관계 강화

- 두 나라가 맞닥뜨린 공동의 도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미국과 중국은 공통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하며 국제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두 나라는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의 본보기를 설정했다. 두 나라는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심도있는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인했다.
- 미국은 강력하고 번영하며 성공적인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하며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국가로서 평화와 안정, 지역 번영에 기여하고 있음을 환영한다.
- 두 나라는 미·중 관계에서 대만 문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중국 측은 대만문제가 중국의 주권 및 영토통합 문제와 관계돼 있음을 지적했으며 미국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3차례의 미·중 코뮈니케를 준수하며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 두 나라는 인권문제에 대해 중대한 견해차가 있지만 인권보호 증진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미국은 인권증진과 민주주의가 외교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은 어느나라의 내정간섭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 두 나라는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 두 나라는 서로간의 오해와 잘못된 판단을 줄이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강화되고 실질적인 대화와 모든 수준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데에 동의했다.
- 두 나라는 우주분야에서 상호방문과 심도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미국은 지난해 미 항공우주국(NASA) 대표들이 중국을





방문한 것에 보답해 올해 내에 중국의 대표단을 초청, 미 항공우주국 본부와 여타 시설을 방문하도록 한다.

#### ◇ 고위급 인사 상호 방문

- 두 나라는 강력한 관계를 위해서는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방문이 꼭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긴밀하고 빈번하며 심도있는 대화가 양국간 관계와 국제평화 및 개발 등에 필요하다. 이런 정신에 입각해 두 정상은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를 포함해서 수년 내에 다시 회담할 것을 기대한다.
- 중국은 올해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중국 방문을 환영하며 미국은 시진핑 국가부주석의 미국 방문을 환영한다.

#### ◇ 국제 및 지역 관심사

- 양측은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공동 이익이 있다고 여기고 지역 및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양측은 모든 국가와 국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 특히 미국과 중국은 폭력적인 극단주의 대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전달수단의 확산 방지, 핵 안보 강화, 전염병 및 기아 퇴치, 기후변화에의 효과적 대응, 해적행위 소탕, 자연재해 예방, 사이버 보안 강화, 초국가적 범죄 대처, 인신매매 방지 등의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미국과 중국은 핵확산과 핵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비확산 국제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국에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양측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조기 참여를 지지하며, 핵분열성물질 생산중단조약(FMCT)을 위한 협상의 조기 착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 미국과 중국은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 및 이와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강조됐던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최근 사건으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진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긴밀히 협력하는 노력이 지속해 온 것에 주목했다.
- 미국과 중국은 남북관계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 대화가 필수적인 조치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고,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이뤄진 기타 약속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 이런 맥락에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양측은 2005년 공동성명 및 이와 관련된 국제적 의무와 약속에 위배되는 모든 활동에 반대한다. 양측은 이러한 문제와 기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 프로세스의 조속한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 미국과 중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이 오로지 평화적인 성격이라고 국제사회가 믿을 수 있게 하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 양측은 이란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따라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아울러 이 조약에 따른 국제적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 미국과 중국은 수단의 남북 평화 분리 과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는데 동의했다. 양측은 모든 당사자가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한 수단의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측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으로 협력과 소통을 증진하고, 평화와 안정,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다자기구를 포함해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

- 오바마 대통령과 후 주석은 상호 존중과 호혜의 협력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두 정상은 광범위한 경제 협력을 촉진키로 합의했으며 기존의 메커니즘에 기반해 경제협력의 틀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미국은 연방적자의 감축과 장기적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고히 하는데 초점을 맞춰나갈 것이며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을 주시할 것이다. 중국은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서비스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며 자원배분에서 시장의 기본적인 역할을 중시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중국은 위안화 환율의 개혁을 촉진하고 환율의 유연성을 증대하는 한편 경제개발 모델의 전환도 촉진해 나갈 것이다.
- 양국은 진보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으며 시장 안정과 지속 가능한 장기 성장을 촉진하려는 유럽 지도자들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 양국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혁신, 번영을 조성하는 데 있어 개방 무역과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국제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고 무역·투자 보호주의에 반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들을 취해나간다는 점을 확인했다.
- 양측은 또 상호 무역과 투자관련 분쟁을 건설적이고 협력적이며 호혜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한다는데 합의했다.



- 두 정상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 개발 라운드를 성공적이고 광범위하며 균형잡힌 결론으로 이끌기 위한 협상 의지를 강조했다.
- 중국은 정부의 모든 기관이 합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감독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포함해 지적재산권(IPR)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다. 중국은 혁신정책을 정부 조달 구매 조항과 연계시키지 않으며 미국은 중국이 WTO 정부조달위원회에 올해 마지막 회의 전에 재차 개정된 제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 두 정상은 양국 국내 경제와 전 세계 경제에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양자투자협정(BIT)의 성공이 양국 투자자들을 위한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투자를 촉진하고 보호함으로써 세계 경제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 미국과 중국은 양국 인프라 개발에서 기업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잠재력을 인식하며 이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양국은 금융 투자와 규제 분야에서 양자간,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금융서비스 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를 위한 개방된 환경도 지지하기로 했다.
- 미국과 중국은 SDR(IMF 특별인출권) 바스켓 통화들이 국제 무역과 금융거래에서 사용돼야 하는 통화라는데 합의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위안화를 SDR 바스켓에 포함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지지한다.
- 양국은 전 세계 금융시스템을 강화하고 국제 금융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국제통화기금(IMF)과 다자개발은행(MDBs)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 양측은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기 위해 개도국, 특히 저개발국가를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세계 빈곤 감소와 개발, 아프리카를 포함한 지역적 통합을 지원하는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 양국은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G-20 체제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며, 세계 경제회복을 강화하고 과도한 불균형을 줄이며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등 서울정상회의 선언문에서 언급된 약속들을 재확인했다.
- 양측은 국제 경제와 금융 문제에 있어서 G-20의 더욱 큰 역할을 지지하며 G-20 정상회의의 약속들을 준수하고 프랑스 칸 정상회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 기후변화와 에너지, 환경 협력

- 양측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를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도전이라고 인식하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전 세계 국민을 위한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며 청정에너지 개발과 투자를 증진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 양측은 현재 진행중인 에너지 정책에 관한 의견교환과 석유, 천연가스, 민수용 핵에너지, 풍력 및 태양열, 전기차, 에너지효율성, 바이오연료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지속할 것을 재확인했다.

◇ 인적교류 증대

- 미국과 중국은 상호 존중과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인 동반자관계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오랫동안 인적교류를 폭 넓고 깊이 있게 해왔으며, 앞으로 이런 인적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

◇ 결론

-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미국 방문을 따뜻하게 맞이해준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양국 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를 증진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상호 존중과 상호 이익의 바탕 하에 협력적인 동반자관계를 건설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양국 정상은 더욱 강화된 양국관계가 상호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봉사할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에 깊은 신뢰를 나눴다.

jh@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1/01/20/0503000000AKR20110120044300072>.  
HTML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